

©2020. 아마네(@KAMUI_GFS2) all rights reserved.

1. 초오를 향한 나루세의 마음

나루세는 초오에게 있어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어요.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그에게 초오란 존재는 조금...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완벽함에서 예기치 못한 존재였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요. 자신의 길에서 방해가 된단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데...이게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오에 대한 길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네요. 그래도 초오가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이것에는 최대한 그래도 응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전부 답해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요. 그러나 다소 자꾸 초오에게서 이 선을 두고서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단호하게 구는 경향이 있어요. 싫어한다는 것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고맙다고는 생각하지만 선볼리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 멀리두려고 하는 그런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2. 나루세를 향한 초오의 마음

초오는 나루세에게 깊고 짙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소 미련해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하고도 깊은 애정인데...초오는 나루세와의 관계를 선택한 것도 자신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자신이기 때문에 나루세에게 책임을 묻거나 나루세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이러한 관계에서 최대한 균형을 잡고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루세와 남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확연하네요. 그만큼 연애적 감정을 깊게 느낀다는 말이죠. 또한 좀...맹목적인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소 극단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나루세에게 깊게 공감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나루세의 이해자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감정도 있는 것 같네요.

3. 과거

두 사람의 과거에 있어서는 다소 거리는 있었어도 나름대로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네요. 서로의 재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서로가 잘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상부상조와 같은 형태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재능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네요. 둘 다 조심스럽고 속을 좀 숨기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봐요. 처음부터 막 친해지거나 마음을 열어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조금씩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네요.

4. 현재

두 사람의 현재에 있어서는 차분히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고...신뢰 관계가 많이 쌓여온 것 같아요. 역시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적 관계가 과거에는 조금 건조하고 가벼운 느낌이었더라면 지금은 그것이 끈끈한 연이 되어서 서로를 향한 신뢰감이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에요. 이 신뢰 관계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기에 웬만한 일로는 쉽게 끊기거나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인이 되진 못했고요...애정이 넘치거나 막...엄청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거나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은 완전히 맞물리지는 못했지만 같이 손을 붙잡고서, 거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미래

두 사람의 미래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정도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여태까지의 관계가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에 초오가 이 기회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본인이 그러려는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자신의 안의 감정이 폭발해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 때의 초오는 솔직하고도 직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나루세가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여기에는 여태까지 초오가 나루세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적이면서도 성숙한 태도나 언행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맺어진 연의 모습들이 겹쳐보이면서 나루세가 좀 동할 수...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의 조금 애매한 신뢰 관계에서 더 깊고 짙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어느정도 나루세가 초오의 마음을 받아주는 쪽으로 생각해주시어도 될 것 같아요.

6. 나루세가 초오에게 바라는 점

나루세가 초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 같은 사람 말고...더 좋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점이네요. 그는 그녀가 성공하는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 외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오가 행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나루세는 초오가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네요...만약에 초오가 나루세를 두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그 정도의 감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초오가 나루세에게 바라는 점

초오가 나루세에게 바라는 점은 그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요...물론 정말이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른 의미로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의 편에 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나루세가 진심이나 죄에 대해서 눈을 피하거나 이것을 일부러 가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르던 간에, 그의 곁에 있을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여 자신을 지나치게 망치게 될까봐 걱정을 한다고 해요...좀 애매하고도 복잡한 감정이지만 하온데 결론적으로는 초오는 나루세가 무너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가 쓰러지면 자신이 그 복수를 위해서 할 정도로...그의 곁에 있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게 있으니, 그가 무리를 하거나 너무 혼자서만 안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8. 우리의 강점과 약점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우선 강점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강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재능적인 면에서의 시너지도 있지만 성격적인 면에서의 시너지도 강한 것 같고요. 서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좀 더 밝고 희망찬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겠어요...단점이 있다면 이 시너지를 두 사람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거기에 서로의 감정을 조금 가식적이고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서...나루세의 경우에는 호감을 안 가지려고 애쓴다던가, 초오의 경우에는 만약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한다던가...그렇게 계속 얇은 벽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껏 서로에게 꼭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안 맞추고 있는 거니까요.

9. 종합 결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궁합 결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에는 한쪽의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겨우 이어져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네요...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느낌이라고도 하고요.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여요. 약간 그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미래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 커플이라고 해요. 그만큼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서로의 시선을 통해서 만사를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전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적인 면을 떠나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더욱 깊어지고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에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